폭넓은 여론을 수렴해 탄력적인 조직을 만들겠습니다

신임 대구광역시지회 정춘원 지회장

"대구는 그동안 훌륭한 선배들의 노력에 힘입어 전국에서 으뜸가는 조직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저 또한 그 전통을 이어 받아 한층 결속력 있는 지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정춘원 신임 지회장은 자신이 해야할 첫번째 과제로 회원간의 단합을 꼽는다. 협회 조직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은 무엇보다도 회원간의 화합과 단결에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정지회장은 "먼저 집행부 구성에 있어서 능력있는 회원들을 고루 기용해 각계의 여론을 폭넓게 수렴할 수 있는 체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라는 말로 임기중 협회 운영의 자율화 바람을 몰고 오겠다는 의중을 내비쳤다.

그의 포부는 크다.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협회로 거듭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싶은 것이 그의 솔직한 심정이다. 하지만 이런 갈증을 속시원히 채워줄 묘안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최선의 방법은 열린 마음으로 회원들의 소리를 듣는 것이겠죠. 또한 경험있는 선배들의 조언을 수용할 수 있도록 언제나 협회의 귀를 열어 두겠습니다."

정 지회장은 집행부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회원과 공존하는 조직 활성화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구체적으로는 생산 원가절감을 위한 공동구매사업, 기술 및 경영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교육사업 그리고 인력난 해소를 위한 기술인 육성 등 회원들에게 보다 직접적으로 협회조직의 필요성을 체감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한 변화의 노력이 계속될 때 비로소 강한 경쟁력이 갖추어진다는 것. 임기중 자발적인 회원들의 참여를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것도 그러한 의지의 표현이다.

"베이커리 시장의 경쟁은 날로 치열해 지고 있습니다. 시장이 사분오열되는 위기 속에서 우리의 영역을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지요. 따라서 이제 협회는 탄력적인 조직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정 지회장은 이런 노력의 구심점으로서 협회가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말한다. 조직의 활성화로 응집된 힘을 이끌어 내는 일이 바로 자신의 임무이기도 하다. 신임 지회장에 취임한 그는 각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벌써부터 분주한 걸음을 옮기고 있다. 특유의 친화력을 바탕으로 회원들과의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의견을 수렴, 이를 협회 운영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정 지회장은 최선을 다한다는 마음으로 일한다면 아무리 어려운 일도 헤쳐나갈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회원들이 협회 사업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길 기대한다는 그의 바램에서 변화의 굳은 의지를 엿볼 수 있다.

분과위원회 운영을 활성화 할 계획입니다

신임 인천광역시지회 강희종 지회장

"제과업에 종사한지 벌써 40여년이 되었습니다. 이제야말로 업계를 위해 무엇인가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 같습니다."

28차 정기총회에서 회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2년 임기의 지회장에 선임된 신임 강희종 인천지회장의 취임 일성이다.

강 지회장은 취임과 함께 새롭게 거듭나는 인천지회를 만들기 위해 여념이 없다. 그의 첫구상은 교육·기술, 기획·구매, 조직·홍보 등 3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이를 주축으로 체계적인 협회 살림살이를 꾸려 나가는 것이다.

"무엇보다 각 분과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해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주력할 생각입니다."

그는 이를 위해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에게 일정 부분 책임과 권한을 일임할 작정이며, 독립적이면서도 전체를 활력있게 끌어갈 수 있는 업무능력을 배양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강 지회장은 또한 방만한 집행부 운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타성을 배제하기 위해 2인체제의 부회장제도를 운영하고, 경영에 수완이 있는 젊은 세대를 이사진에 폭넓게 참여시키는 방향으로 조직구도의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또한 조직력 강화와 함께 강 지회장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교육사업 부문이다.

"요즘 업계는 날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연구하지 않으면 치열한 경쟁에서 이겨 나갈 수가 없습니다."라는 말에서도 읽을 수 있듯이 생존을 위한 가장 적극적인 투자가 교육의 활성화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

"앞으로 인천지회는 기술 및 경영세미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물론, 형식적인 일과성 행사에서 벗어나 피부에 직접 와 닿는 내실교육을 펼치는 데 심혈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강 지회장은 정기적인 무료세미나와 함께 참가비 부담이 있더라도 가급적 유명 강사를 초청해 회원업소에 꼭 필요한 품목의 세미나를 실시할 생각이다. 이와 함께 경영에 수완이 있는 지역 회원을 초빙하여 경영사례를 발표하는 경영인 세미나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신임 강 지회장이 해야 할 일은 산적해 있다. 그러나 그는 조직력 강화와 교육사업을 가장 큰 줄기로 삼아 임기가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그밖에 공동구매사업, 회원들의 단합을 위한 과업인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 또한 부회장을 정점으로 한 분과위원들의 적극적인 활약으로 풀어 나갈 작정이다.

2년 임기동안 욕심내지 않는 친화력으로 '인천호'를 이끌어 나갈 계획인 강 지회장은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지금까지의 보수적인 조직에서 능동적인 지회로 변신을 꾀할 생각이다.